

골키퍼서 최전방 공격수까지...축구에 빚낸 '독전' 류준열의 성장기

“이번엔 많이 까불었죠” 골문 향해 달린 류준열의 통쾌한 한 방

축구는 팔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쓸 수 있는 운동이다. 발과 다리는 특히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정확하고도 정교하게 둥근 공을 다루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그 정확하고 정교한 몸놀림과 발과 다리로써 공을 다루는 솜씨의 현란함은 수많은 이들을 열광하게 한다. 발과 다리가 엮는 강한 힘을 싣고 대포알처럼 날아가 골망에 꽂히는 공은 통쾌함까지 안긴다.

22일 개봉한 영화 '독전'(감독 이해영·제작 용필름)은 주연배우 류준열(32)에게 최전방 공격수로서 날린 통쾌한 한 방의 골처럼 보인다. 2014년 데뷔한 이후 쉬지 않고 골문을 향해 내달려온 4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연기로서 만개해 보이는 그와 그의 신작에 호평이 쏟아지는 덕분이다.

관객들에 안정감 못 준 신인 시절 선배들 사이서 역할 깨달은 '더 킹' '독전' 흥행 부담감...외로운 전쟁 축구도 영화도 결국 사람이 한다 함께 즐기며 열심히 뛰자고 다짐



배우 류준열은 영화 '독전'을 통해 "연기하는 재미를 새삼 경험했다"고 했다. "매번 즐겁지만 한 건 아니지만 작업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이면서 재미있는 인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NEW

●골키퍼와 풀백에서 미드필더로

류준열은 2007년부터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운동장을 뛰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형의 권유로 축구회에 가입했다.

맨 처음 포지션은 골키퍼였다. 골키퍼는 운동장에서 유일하게 팔과 손을 쓸 수 있는 포지션. 골망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팔과 손은 물론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임무를 지녔다. 골문을 지키는 실력 좋은 수문장은 공격수와 수비수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갖고 있는 잠재주로 연명했다"고 지난 시간 자신이 섬 없이

달려온 운동장을 돌아봤다. 2014년 '소셜포비아'로 장편영화에 데뷔해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지만 아직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골키퍼에 불과했다고, 그는 봤다.

"내가 지닌 감성만으로 눈속임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수비수를 자임했다. 최종 수비수인 풀백이었다.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좀 더 도전해야 했다. 그런 책임감 같은 거다."

이후로는 공만 봤다. 공을 다루는 솜씨는

조금씩 정확하고 정교해져갔다. 풀백에서 나아가 윙백, 다시 미드필더가 되었다. 더 넓은 시야로 그라운드와 공의 움직임을 재빠르게 살펴봐야 했다. 더욱 더 조직적이어야 했다. 그러는 사이 만나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선배와 동료들의 틈새에서 부담감 또한 작지 않았다.

"그걸 깨기란 쉽지 않다. 끝내 깨지 못한 게 영화 '더 킹'이었다. 지난해 '택시운전사'로 만난 송강호 선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선배가 다가와 함께 만나 좋은 힘을 내면 된다는 걸 알게 해줬다."

미드필더란 본디 그런 것이다. 수비수와 공격수를 오가며 중원을 장악해야 하는 임무를 지녔으니, 류준열은 선배들의 사이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비로소 깨달아갔다.

●미드필더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어느새 그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어 있었다.

"이번엔 많이 까불었다. 감독과 많은 선배들 앞에서. 잔재주와 내 작은 감성으로 해결되는 작품이 아니었다. 그러면 안 됐다."

'독전' 속 마약조직의 실체를 쫓는 형사

를 돕는, 조직으로부터 버림 받은 략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그는 연기하는 재미를 새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건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저 멀리 골키퍼의 발로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공이 중원을 거쳐 자신의 소유가 됐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상대의 골문을 향해 치달아가자면 자신감은 필수적인 마음가짐이 된다.

하지만 골이 아니고서는 승부를 낼 수 없는 운동장 위에서 그 결판의 책임은 온전히 공격수가 져야 한다. 책임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스타플레이어의 명성을 얻게 되는데, 최전방 공격수는 그래서 더욱 외로운 길이다.

영화 '독전'의 제목은 '독한 전쟁(毒戰)'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류준열은 이를 '혼자만의 싸움(獨戰)'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마냥 외로운 것만도 아니었다.

"내겐 이전보다 앞으로 해야 할 싸움이 더 중요하다. 그만큼 홀로 싸우기가 가장 어렵다. 스스로 싸워 이기면 타인과 만남도 행복해진다.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다툼도 내가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거다. 내가 나를 이기면 누구 만나도 행복해질 거다."

승부의 책임을 최전방 공격수가 지고 있지만, 류준열은 축구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작품을 먹고 함께 밥을 먹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 그 속에서 결국 사람이 남겠구나 싶다. 그래서 영화는 재미있다. 매번 즐겁지만 한 건 아니지만 함께 밥을 먹다 문득문득 느껴지는 순간들. 그런 게 쌓이면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걸 거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앞만 보고 내달리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지금, 그는 "자고 일어나면 잊고 그저 오늘을 열심히 뛰자"고 말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독전’ 강승현·이주영, 스크린서 빛난 모델들

강승현, 호쾌한 액션 연기로 눈길
이주영, 마약 기술자 역 짙은 인상

영화 '독전'은 류준열을 비롯해 조진웅, 차승원, 김성령, 고 김주혁, 박해준 등 다채로운 배우들의 힘으로 빛난다.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눈길을 끄는 연기가 있다. 강

승현과 이주영이다. 런웨이를 힘차게 걸어나와 어느새 스크린으로 영역을 넓힌 모델 출신들이다.

이미 톱모델로 이름을 얻은 강승현은 마약조직을 쫓는 조진웅이 이끄는 팀의 형사. 영화 '챔피언'으로 연기의 맛을 들인 강승현은 언뜻 모델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독전'에서 한 비중을 차지

한다. 특히 날렵한 몸놀림으로 호쾌한 액션 연기까지 펼치며 모델 출신 연기자로서 또 다른 모범을 완성했다.

이주영은 최근 막을 내린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라이브'로 낮익다. 극중 순경시보 역을 맡아 '높은 사수'와 팀을 이룬 그는 '독전'에서 청각장애를 지닌 마약 제조 기술자로 출연했다. 천진난만해보이지만 독한 마약을 만들어내는 기술자이면서 자신을 위협해오는 위협에 잔혹하게 맞서는 인물이기도 하다. '라이브'를 보지 못한 관객

이라도 그의 등장에 신선한 또 한 명의 연기자를 만나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만큼 짙은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강승현과 이주영은 역시 모델 출신으로 자신들의 선배이기도 한 차승원과 연기를 펼쳤다. 차승원은 두 사람의 연기 지도를 책임지기도 했다. 제작사 용필름의 임승용 대표는 "모델들은 선후배의 위계가 다른 분야보다 엄격한 것으로 아는데, 강승현과 이주영은 선배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강승현

이주영

연예뉴스 HOT 5

日 '고독한 미식가' 한국편 내달 방송

일본 인기 TV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한국 촬영분이 다음 달 방송된다. '고독한 미식가 시즌7' 배급사 도라마코리아 측은 '고독한 미식가'의 한국 출장편이 6월1일과 8일, 9화와 10화로 2주에 걸쳐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방송된다고 22일 밝혔다. '고독한 미식가'는 주인공 이노가시라 고로가 맛집을 찾아다니며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는 내용이다. 최근 이노가시라 고로 역을 맡은 마츠시게 유타카가 내한해, 한국 편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고독한 미식가' 한국 편은 서울 강남과 용산, 전북 전주 등에서 촬영했으며 가수 박정아와 성시경이 출연했다.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 돌아온다

‘해변으로 가요’로 유명한 60년대 인기밴드 키보이스가 부활한다. 1963년 결성돼 한국 그룹사운드의 효시로 통하는 키보이스는 차도균(베이스·보컬), 윤항기(드럼), 김홍탁(기타), 옥성빈(키보드), 차중락(보컬) 등 5인으로 출발했다가 196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멤버들이 하나둘 탈퇴했고, 이후 활동이 호지부지됐다. 최근 차도균(75)이 이선용(키보드), 박경수(드럼), 남기연(기타), 은기학(베이스) 등 40, 50대 멤버를 영입해 팀을 재 정비, 약 50년 만에 키보이스 활동재개의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올 여름 다양한 축제에서 팬들을 만난 후 9월 콘서트, 이후 새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와이스, 日 발매 첫 주 20만장 돌파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최초로 첫 싱글부터 3작품 연속 초동 20만장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썼다. 22일 일본 오리콘은 "트와이스가 일본 3번째 싱글 '웨이크 미 업'으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 '3작품 연속 발매 첫 주 20만장 돌파'를 기록했다"면서 트와이스의 신기록 행진을 집중 조명했다. 아울러 "해외 아티스트 중 첫 싱글부터 세 번째 싱글까지 연속으로 발매 첫 주 20만장 돌파 기록을 세운 것 또한 최초"라고 트와이스의 기록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일본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같은 해 싱글과 앨범 모두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아이유, 모욕·명예훼손 악플러 고소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일부 악플러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악성게시물 사례에 대해 팬 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채증자료 및 당사 법무팀의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 법률사무소 민산을 통해 2018년 5월9일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소장을 1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아이유 측은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성적 희롱 등을 일삼는 온라인 및 SNS 내 악성 게시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상황을 밝히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MBC '퇴사한 아나운서들 계약단로'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자 MBC는 규정 에 따른 계약단로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전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MBC 총파업 후 최승호 사장이 선임된 뒤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없던 일이 됐고, 재시행을 권해 형식적인 시험인줄 알고 치렀는데 11명 중 1명만 선발됐다. 이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했음을 알려드린다"며 "14명의 계약직 사원 및 프리랜서가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된 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